



1969年度의 大學圖書館界

—1969년을 中心으로 한 大學圖書館의 諸問題—

李 鳳 順

(梨花女子大學校中央圖書館長)

지난 1년 동안에 한국 大學圖書館界는 특기할 만한 일은 없이 무난한 한해를 보낸 것 같다. 다만 예년과는 달리 국제회의의 관계로 5월에 열린 大會가 9월에 大學圖書館 大會가 있었고, 8월에 國立大學 圖書館長 會議이 열렸고, 같은 8월에 教育大學 圖書館 實務者 會議이 있었다. 그리고 大學 圖書館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기할 만한 일은 아시아 太平洋地域 圖書館 大會가 서울에서 열린 사실이다. 「도서관과 국가발전」이란 主題를 내걸고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10여 개국이 참가한 것은 1969년이 거둔 큰 수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圖書館界가 살아 있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大學의 圖書館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필자는 이 기회에 우리 나라 大學圖書館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제점은 1969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루 아침에 해결될 일도 아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안에 해결 되기를 바라는 문제들이다.

大學 社會는 學問하는 이들이 모여서 이룩하는 한낱 특수 社會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大學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目的은 어디까지나 배우고 가르치고 研究하는데 있다. 大學社會의 절대 人口인 學生 및 教授들은 學問 研究에 필요한 資料를 찾고 있다. 그 資料를 수집하고 整理하고 保管하여 研究活動에 도움이 되도록 奉仕하는 곳이 圖書館이다. 이 大學의 圖書館이 올바른 機能을 발휘할 때 비로서 그 大學 社會는 건강하고 살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圖書館은 大學社會의 심장 역할을 한다고 본다. 大學生活을 圖書館과 연결 짓지 못할 때 정상적인 大學 과정을 밟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學生이나 教授들이 다 같이 圖書館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大學의 圖書館은 모든 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나라 大學의 圖書館들은 建物과 圖書의 數量에 모든 신경을 다 기울이고 奉仕面에서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들 수 있겠지만 몇몇 大學을 제외하고는 大學의 歷史가 짧고 歷史가

있는 大學의 경우도 戰爭을 치르고 나서 새로 출발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률적으로 다루기는 힘들다고 본다.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 나라 大學 圖書館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기간은 겨우 15년 정도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아직 성장기에 있는 大學 圖書館이 태반일 것 같다.

첫째로 우리 나라 大學 圖書館의 建物은 어떠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제외하면 대개의 大學 圖書館은 1956년 이후에 신축된 건물들이다. 전체적으로 볼때 옛 건물은 옛대로 애로가 있고 새로 지은 圖書館들은 또 새로운 대로 문제점이 많다. 신축된 圖書館 建物の 애로는 도서관 機能을 무시한 그 設計에 있다고 보고 싶다. 大學의 圖書館을 새로 짓는데 圖書館 건축 전문가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고 처리하는에서 부터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간혹 司書들의 조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모든 司書가 다 건축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건축 기사와 圖書館 건축 전문가와 서로 긴밀한 타협이 있는 후 건축 委員會를 구성하여 이를 검토하고 다시 재 검토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1969년도에는 3개의 大學 圖書館이 신축 開館하였다. 서울에 2개, 지방에 1개로 되어 있다. 필자는 아직도 그 중의 어느 하나도 가보지 못하여 이를 평할 수는 없으나 새로 지은 도서관만은 앞서 지은 도서관들이 범한 과오를 다시 되풀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희망이다. 모든 면에서 낭비를 막고 司書들이 일하기 쉽고 學生 및 教授들이 이용하기 편한 大學 圖書館 건물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하지만 안에 들어서면 어수선하고 정이 붙지 않는 건물이 태반이다. 大學의 圖書館은 教室과는 달라서 앉을 자리만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니다. 大學의 行政人들은 건물을 지어 주면 들기나 하지 웬 잔말이 많은냐는 식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 圖書館 건물이 잘못 되면 결과적으로는 大學 社會 전체에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살림집도 앉을 내다 보고 설계를 하는데 하물며 대대로 물려 내려 가면서 사용될 큰 기관의 건물이 그렇게 쉽사리 처리될 수 있을 것

인가 사뭇 의아하기만 하다. 設計士만 믿고 그림을 그리게 하는데 모순이 있다고 본다. 圖書館 機能에 대한 개념이 없는 設計士의 머리에서 어떻게 원만한 設計가 나오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충분한 사전 심의가 필요하고 設計士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 완전히 圖書館 建物の 機能을 소화한 후에 設計에 착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圖書館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要素中的의 하나인 資料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 모든 種類의 圖書館이다 그러하지만 특히 資料에 민감해야 하는 곳이 大學 圖書館이라 생각된다. 현재 우리 나라의 大學 圖書館들은 그 중 어느 하나도 資料에 완벽을 기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學生 一人당 30권의 資料를 비치해야 한다는 그 基準은 애당초부터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차라리 大學의 學科를 단위로 하여 그 특정한 科 나름으로 4년제 大學 課程에 필요한 基本 圖書를 몇년 안에 비치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왜냐하면 학생數가 적은 科는 책이나 資料가 적어도 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數量에만 기준을 두고 主題를 무시하면 資料의 均衡을 생각하지 못하고 數만 채우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 자칫하면 大學의 圖書館이 현 책의 보관소가 될 우려도 없지 않다. 그리고 大學 社會에서는 資料가 거의 무한대이다. 특히 大學院 研究 과정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數를 제한하거나 線을 그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 數量 문제는 신설 大學이나 신설 學科에서 필요로 할 것 같다. 그리고 大學 圖書館 資料의 生命은 새로운 最新 資料에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항상 새로 나오는 資料에 민감해야 한다. 大學 圖書館 資料의 選擇은 各 主題 分野를 代表하는 教授들과 圖書館 사이에 긴밀한 연락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전공 분야에서 教授들이 각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에 신경을 써야 하고 이를 資料 選擇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資料 구입은 豫算과 직결 되는 문제이고 圖書費란 언제나 不足한 것이 원칙인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資料를 수집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資料가 제대로 갖추어 있지 못한 圖書館은 그 大學 社會를 건강하게 學問하는 社會로 이끌고 나갈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들의 실정은 書庫에 꽂혀 있는 책이 활용이 되지 않더라도 數만 넘적하면 우선 만족하고 新刊을 소홀히 하는 圖書館이 있는가하면 그 반면에 數에만 급급한 나머지 엄격한 資料 選擇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어느 大學의 圖書館이나 다 그 自體內에 제 나름의 資料를 구성하는 基準이 서야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大學 圖書館

資料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셋째로 우리 나라 大學 圖書館의 奉仕面을 살펴보면 겉으로는 체면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한심스런 상태에 놓여 있다. 그 이유는 大學 社會의 모든 人口가 圖書館 사용법을 배우지 못하고 大學에 오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大學圖書館들이 대학 도서관 다운 機能을 제대로 살려서 奉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때문이라 보고 싶다. 參考室, 雜誌室 그리고 閱覽은 다 같이 奉仕를 맡은 부문인데 이런 부문이 원만하게 돌아가는 도서관이 몇 몇으로 헤아릴 정도인 것 같다. 아직까지 學生들에게 館外 貸出을 금하고 있는 大學 圖書館도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여건, 이러한 환경에서 大學 圖書館이 발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建物이 있고 資料가 있고 司書들이 있는 이유는 결국 大學 社會人에게 奉仕하기 위해서 있다. 學問하는데 圖書館 奉仕 없이는 그 研究 活動이 계속될 수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이 奉仕는 一方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이 같이 호흡이 맞아야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奉仕面에서 일하는 司書들은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는 圖書館人이라야 한다. 우리 나라에는 이러한 司書들의 절대수가 부족하다. 특히 大學 社會에서는 主題別 전문 지식을 가진 司書들이 필요하다. 第一線에서 教授들 및 學生들과 같이 主題를 論하고 質問에 응할 수 있는 圖書館人이 아쉬운 편이다. 그리고 이 奉仕面은 大學 自體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다른 大學과 大學間에 相互 貸借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相互 貸借 문제는 그 움직임이 시작된 되었으나 아직은 모든 大學 圖書館들이 자체 정비에 급급한 나머지 이를 등한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일이야 말로 어느 한 圖書館이 열성을 보여서만 되는 것이 아니므로 배를 기다려야 할 문제라 생각 된다. 머지 않은 장래에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奉仕面에서 한가지 언급하고 지나 가고 싶은 것은 圖書館 이용 문제이다. 大學의 圖書館은 시험 공부방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圖書館을 찾는 目的이 자리를 차지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資料 이용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大學 社會에서는 教授와 司書들이 협력하여 圖書館 資料 이용법을 가르치고 이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로 大學 圖書館 司書 문제를 생각해 보고 싶다. 筆者는 우리 나라에서 圖書館人이 가장 부족한 곳이 바로 大學 圖書館이라고 본다. 현재 大學 社會에 발을 들여 놓고 일하고 있는 司書들은 대다수가 4년제 학부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한 졸업생들 아니면 대학에서 도서관 敎育은 받지 않고 긴 세월동안 경험을 쌓은 분들

혹은 강습회 정도를 수업한 분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실무에서 資料 整理 및 기타 사무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나 參考 업무에서는 크게 공헌을 기대할 수가 없다. 大學 社會에서는 司書들의 主題에 관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參考室에는 碩士 學位를 받은 司書가 필요하게 되었고 雜誌室도 또한 그러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이 문제는 아직 전도 요원한 이야기이다. 또한 가지 고민은 大學의 圖書館 책임을 맡은 분들이 圖書館學을 전공한 분이 많지 못한 점이다. 전공이나 研究分野가 전연 다른 분들은 도서관 행정 보다는 研究에 몰두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圖書館의 發展에 큰 기대를 걸 수가 없을 것 같다. 물론 유능한 사서장들이 있어 보좌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다. 다른 나라에서는 大學 圖書館 司書들에게 教授들과 같은 자격을 주고 있다. 그 이유는 大學의 教育은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圖書館에서도 이루어 진다고 보고 司書들의 教育的인 역할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실정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그 이유는 大學의 教授 자격을 받을 만한 司書들의 數도 많지 못하지만 우리 나라 大學의 制度上 모순이 있다고 본다. 外國에서는 圖書館이 大學의 一部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는 이를 부속 기관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부속 기관은 절대적인 것이 못되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점이 대학도서관 발전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본다. 大學 社會에서 圖書館은 學問의 中心街인테 부설 기관으로 뒤에 미루어 놓고 있으면 그 社會가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圖書館

長은 조용히 들어 앉아 研究만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 우리나라 大學 圖書館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이런 요소 혹은 가능성이 있으면 大學의 圖書館이 빛을 보기 힘들 것 같은 노파심에서 염려하는 것 뿐이다.

앞으로 大學 社會에서는 모든 司書들의 자질 향상을 피해야 할 것 같다. 圖書館學 분야의 大學院 과정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大學 圖書館 司書 매우 문제도 고려 되어야 할 것 같다. 大學院을 졸업하고 와서 4년제 학부 졸업생과 동등의 대우를 받으면 구태여 학위를 받을 의욕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大學 行政 당국과 잘 절충하여 재 검토할 단계에 왔다고 본다.

大學 圖書館 大會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문제이지만 앞으로 대학 도서관의 機械化도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복사기를 구입한다거나 콘베이어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일이 곧 機械化라고 생각 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먼저 大學 圖書館 機能이 기술이나 봉사면에서 올바른 궤도에 오르기 전에 機械부터 구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 생각한다. 미국서도 전자 계산기를 들여 놓고 오히려 고민하는 도서관도 보았다. 機械는 빠르고 多量을 취급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아까운 예산을 듬뿍 잡겨 놓고 機械에 먼지가 앉는 경우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시기를 맞추어서 機械化를 고려해야 될 것 같다. 모든 도서관의 機械化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단지 문제는 그 時期에 있는 것이다. 지나치게 성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8面에서 繼續)

여 新築해 가지고 晉州市에 기증한 現代式 2層 콘크리트 건물(178坪)로 今年 1月 9日에 開館하였다. 이 도서관은 330席의 열람석과 約 5,000권의 장서를 가지고 出發하였으며 晉州市의 發展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江陵市立圖書館으로서 市財政 900만 원을 들여 현대식 철근 콘크리트 2층 건물(200坪)을 짓고 금년 9月 17日에 開館하였다. 이 도서관은 260席의 열람석과 약 3,000권의 장서를 가지고 出發하였으며 江陵市의 發展에 크나큰 寄與를 할 것이다.

이는 모두가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의 所産으로서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淸涼劑요. 보람찬 앞길을 비쳐주는 光明이 아닐 수 없다.

6. 結 語

이상으로 今年度에 있어서의 公共圖書界 活動을 대

강 훑어 보았다. 비록 그 數가 적고 자료나 예산이 빈약하다고는 하지만 그런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後退가 아닌 前進이요, 무엇인가 해보자고 움직이는 것이 사실이다. 量的인 增加와 質的인 向上을 위하여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70年代의 번영을 위한 노력의 일단이다.

이 해를 넘기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공도서관이 지니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 소속청의 일원화 문제, 사서수당 지급 문제, 지방 공무원 임용령 개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과제로 남기게 되었다는 점이다.

비록 우리가 약하다고는 하지만 힘과 마음을 합하기만 한다면 이러한 문제들도 하나 하나 해결 될 것이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하여 굳은 信念을 가지고 일할 때 보람찬 來日은 우리를 저바리지 않을 것이다.